

창립35돌... 회원8백여명 한국임학회

정 주 상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한국임학회는 우리나라 임학 혹은 임업관련 학회 중 가장 먼저 창립된 것으로 그동안 한국임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올해로 만35년째가 되는 한국임학회는 1994년 현재 8백명이 넘는 회원과 행정기관,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 1백60개의 기관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모범적인 대형학회로서의 면모를 굳혀가고 있다.

그동안 여러 회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축적된 학술적 기반은 전국토의 약65%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녹화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게 함으로써 산림관리 모범국으로 격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환경,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전 등에 관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중심학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임학회의 연혁과 현황, 그간의 사업실적, 앞으로의 계

획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대회장 현신규박사

<연혁> 한국임학회는 1960년 서울 시회의실에서 있었던 창립총회에서 임학전반에 관한 연구와 회원상호간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함으로써 임학 및 임업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총회에서 학회 회칙이 제정되었고, 임기2년의 초대회장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현신규교수가 피선되어 제6대 회장까지 역임하면서 초창기의 학회기반을 구축하였다.

그후 현재의 제17대 운중화회장(강원대학교 교수)까지 11명의 역대회장단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날의 발전된 학회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62년에 한국임학회지의 전신이 되는 「임업과 임학」의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이 학술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학관련 전문학술지로서 66년 「한국임학회지」로 회지이름을 바꾼 후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인정받는 학술지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임학회는 72년 한국목재공학회가 임산가공분야 전문학회로 분리하기까지 유일한 임학관련학회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92년 산림경제학회가 분리하였으나 여전히 임학관련 분야에 걸친 모학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 등 160기관 등록

<회원> 한국임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찬조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분류된다. 정회원은 임학을 전공하거나 임업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94년도 현재 정회원만 8백7명이 등록하고 있고,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찬조회원은 학회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현재 6개의 임업관련 기업, 조합 혹은

협회가 가입되어 있다. 기관회원은 임업유관 국공립기관이나 법인체로서 현재 대학의 임학관련 학과, 산림청과 그 산하조직인 임업연구원, 육종연구소, 영림서, 관림소 등 1백60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상임이사진 활동 강화

<학회기구> 학회는 회장, 부회장단, 총무이사 및 편집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회장단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93년도 학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임이사진의 활동을 강화하므로써 학회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임기가 시작되기 전 1년전에 학회의 이사들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임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이와 같은 회장선임제도를 통해 취임전 학회업무에 미리 관여하므로써 학회업무를 익힐 수 있고, 학회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총11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보좌하는 총무, 기획, 학술, 편집 및 재정담당의 상임이사와 6개의 학술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학회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총무이사 및 상임이사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술활동은 6개의 학술분과와 자체적인 전문분야 모임인 연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각 학술분과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학회지 발간은 편집위원장이 관장하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 편집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학회기구는 학회 원로로 구성된 고문단이 있고,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회장단, 총회, 이사회, 6개의 학술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학회 중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행 학회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윤종화
- 부회장 : 김영달, 이보식, 황재우, 전상근, 여영동
- 편집위원장 : 한상섭
- 총무이사 : 정주상
- 상임이사 : 이돈구, 이정석, 우보명, 이흥균, 박상진, 최민휴, 한상섭, 이재선, 허남주, 김진수, 정주상
- 감사 : 이범영, 이수옥

그 외에 1백42명의 이사가 있으며, 주요기관과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가 4명이 있다.

학술논문 매 70편 발표

<국내학술활동> 한국임학회의 학술활동은 정기총회 및 하계총회로 구분된 2회의 총회와 학회의 지원하에 개최되는 학술분과 및 전문분야 연구회의 비정기적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경 수

도권에서 열리고, 하계총회는 지방 대학 혹은 유관기관에서 개최한다.

학회 창설이래 총35회의 정기총회와 31회의 하계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및 학술토론회는 1박2일로 계획되며 총회가 끝난 후 임학분야의 시사성 있는 주제를 1~2편 선정하여 특별강연을 하고, 오후에는 학술발표회를 분과별로 나누어 개최한다. 매 학회 참석인원은 약 3백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수는 매회 약 35편(연간 70편) 정도가 된다.

특별강연은 해당 주제의 국내외 석학을 초빙하거나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을 초빙하여 학술 및 정책적인 강연 및 토론을 준비한다.

이러한 강연은 학술적인 주제의 경우 새로운 학문적 조류 혹은 시사성 있는 국내외 임학문제를 선정하게 되며 간혹 산림청과 같은 정책당국의 정책입안 내용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학자들의 의견을 정책입안에 반영시키기도 한다.

학술발표회 다음날은 학회개최기관의 안내로 실제 임업현장을 돌아보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토론을 하게 된다. 비정기적인 학술활동으로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혹은 국제학술회의가 있으며, 각 학술분과 혹은 연구회에서 학회지원하에 주관하는 학술회의들이 있다.

이러한 소그룹의 학술회의들은 동일분야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게

나 학술연구사업에 대한 토론이 주목적이다. 그 외에 국내 임학이나 임업의 현안문제를 주제로 하여 산학연합 등의 대토론회나 심포지엄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저명인사 초청 특강

〈국제학술활동〉 학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국제학술회의로는 1974년 IUSF 및 IUFRO 참가보고회 및 추계심포지엄을 효시로하여 84년 소나무 솔잎혹파리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87년 세계 임업행정 및 임업연구 사업의 후원방향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91년 한독산림유전학 국제심포지엄, 91년 환태평양지역 임산물 국제무역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및 93년 산림 측정 및 산림경영과학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있었다.

91년 이전에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은 주로 외국의 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 특별강연 중심의 학술회의로 개최하므로써 발표논문에 제한을 받아 편수가 적었던 데 비해 9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기조를 탈피하여 국제학회 혹은 국제적인 명망이 있는 학술지의 광고를 통해 논문발표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90년대에 개최된 국제학회에서는 매년 50명 내외의 선진외국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표논문의 질이 어느 국제학회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의한 광고효과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국제

학회에서 한국임학 및 임업의 위상이 그만큼 인정을 받게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국제학술회의 및 임업관련 국제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국제학회와의 교류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70년 창립10주년 행사로 일본구주 대학의 監谷勉교수를 초빙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외국의 저명학자들을 초빙하여 학술강연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임학관련 국제학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환경, 산림환경 및 희귀생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범 세계적 협약을 위한 회의가 외국에서 자주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의에는 전문성을 지닌 임학회 회원들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 연간 4회 발행

〈학회지〉 한국임학회지는 1962년 발간된 「임업과 임학」을 효시로 하여 오늘날의 권위있는 전문학술지로 발전하였다. 「임업과 임학」이라는 학회지는 66년 한국임학회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68년까지는 연보형태로 발간되었으나 68년부터 72년까지는 연 2~3회, 73년부터는 계간으로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다.

80년대까지는 매호 약10편 안팎의 논문 수록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

나 90년대 들어 투고논문의 편수가 급격하게 증대됨으로써 93년부터 매호 약15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면이 부족한 실정이다.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엄선하므로써 전문학술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매호당 1천2백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천1백50부는 회원, 기관회원 및 전국의 대학 도서관에 발송되고, 나머지는 외국의 도서관이나 회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62명에 학술상 시상

〈기타 사업실적〉 학회에서는 산림당 행정기관이나 연구소를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용역사업은 일반적으로 전국규모의 조사연구나 학술 및 행정용어의 정리 등과 같이 대규모 연구진이 필요한 산학연 협동연구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60년에 창립된 학회에서는 매10년마다 창립기념행사를 기획한다. 70년 제10주년 행사로서 일본의 監谷勉교수를 초청하여 특별강연 행사를 개최하였고, 80년에 창립 20주년 행사로 「한국임학회 창립2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90년에는 창립 30주년기념사업으로 임학분야 「논문색인집」을 발간하였다.

특히 이 논문색인집에서는 학회 창립 후 임학, 임산가공학 외에도 조경분야 등 임학유관분야의 모든 논문들

의 색인을 체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임학분야 외의 유관분야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 학회에서는 임학 및 임학 발전에 공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술상, 공로상 혹은 저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학술상은 전년도 한국 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2명의 저자에 대한 학술상 수여가 있었다.

공로상은 학회의 발전과 우리나라 임업 및 임학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수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16명에게 수여되었다.

그 외에 저술상은 임학분야와 관계된 저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26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남북한 정보교류 모색

〈앞으로의 사업계획〉 2000년대를 바라보는 한국임학회는 보다 내실있는 학회로의 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토대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과 관련하여 목재생산, 국토보전 등의 전통적 임업체계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환경, 휴양, 수자원 관리, 야생동물 등의 분야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회의 시대적 흐름은 종합과학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관학회(한국목재공학회, 펄프제지공학회, 임산에너지학회, 산림경제학회, 정원학회 등)와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가칭 한국산림과학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을 통해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더욱 증진할 계획이며 특히 2000년대에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산림과학자대회(IUFRO)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한다.

74년 학회에서 임학용어집 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학관련 용어들을 정리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새로운 임학용어가 제정되거나 외래어가 유입됨으로써 임학 혹은 현장 임업에서의 용어가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임학용어집을 편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산학연 협동으로 진행중이다.

그외에 학회운영 및 학술대회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 창립이래 학회사무실이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적정한 학회기금을 활용하여 독립된 사무실을 서울에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회원들의 연구가 활발하여 학회지 투고논문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최근 몇년간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회내 각 학술

분과 및 연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술발표회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회원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 임학자들과의 공동 학술 조사연구에 대한 사업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임학 혹은 임업에 관한 정보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남북한의 산림생태, 산림환경, 산림보호 문제 등 공동의 노력이 부단히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학술적 정보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남단에서부터 북상하면서 남한 전역의 소나무림에 극심한 피해를 준 솔잎혹파리가 최근 휴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짐에따라 금강산을 위시하여 북한 전역에 급속히 퍼질 것이 예상되므로 남북간의 신속한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자원 및 환경자원이므로 산림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국민홍보용 책자의 저술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국가경쟁력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여가활동과 자연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 수자원, 야생동물 등 자연자원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자연관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에 의해 발간될 책자들은 초중등 교육과정 혹은 일반국민의 교양교재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